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2, 교부들의 그리스도론, 1부, 니케아 이전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교부 그리스도론, 1부, 니케아 이전입니다. 우리는 교부 그리스도론을 공부함으로써 그리스도론에 대한 과정을 계속하고, 저는 친구 스티븐

웰럼의 엄청난 빛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그리스도론적 공식화. 따라서 우리의 연대는 서기 100년에서 325년과 같습니다. 알로이스 그릴마이어는 인용문에서 그리스도론의 서사시가 2세기만큼 다양하고 다른 사상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언뜻 보기에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우리는 신약이 이 무렵에 쓰여졌지만, 그것이 전체 정경으로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가 퍼져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보편화되면서 박해 측면에서 반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미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존재했을 때에도 교회 내부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왜곡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경에 문맹이고 낯선 세계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개종하면서 불가피하게 많은 짐을 수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종교적 융합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이 전파하고자 했던 바로 그 복음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제러미 잭슨은 모든 이단을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양한

거짓된 견해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이고, 모든 이단의 핵심은 그를 오해하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형벌 대속자로서 죽으신 성육신하신 아들에 의해 성취되었으며, 반항적인 인간에게는 모욕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고, 믿음의 빈 손을 들어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은혜롭고 강력하게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끍니다. 어떤 시대에도 참된 기독교와 거짓된 기독교를 구별하려면,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누구를 행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 대답은 신학과 윤리에 중요합니다.

이 기간인 100년에서 325년 사이에 사람들이 성경의 예수에게서 떠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신성, 그의 인간성, 또는 그의 인간성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시대와 달리 영지주의와 관련된 첫 번째 이단은 그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의 인간성을 부인했습니다.

유대교와 관련된 이단, 군주제, 유대교 이단, 군주제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개요입니다. 유대교 이단. 그리스도론적 이단의 첫 번째 숫자는 유대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유대인 공동체는 대부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그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2세기에서 5세기 초까지 에비온파로 알려진 유대인 기독교 집단이 존재했는데, 이 집단은 바울의 유대교 반대자들의 지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집단은 예수의 동정녀 잉태와 그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는 비범하지만 초자연적인 재능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율법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고,

에비온파는 그가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인용 부호로 표시된 그리스도가 세례 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에게 내려왔다고 가르쳤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주로 영향력 측면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 메시아적 용어로 잉태된 그리스도는 예수에게서 물러났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는 그의 외침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언급할 필요가 없는 다른 유대교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군주주의 이단은 군주주의 와 관련이 있습니다 . 두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론적 삼위일체 이단은 군주주의 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이 입장은 일신교와 신성한 통일성 또는 군주제를 보존하려고 했지만, 아들과 성령의 완전하고 동등한 신성을 배제했습니다. 아들의 신성을 배제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둘 다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났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입양주의 또는 역동적 군주제주의 의 입장이었습니다 .

이 관점은 신성한 일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예수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로고스, 즉 아버지와 동일시되고 동일한 본질이지만 별개의 인격이 아닌 일종의 힘 또는 이성인 예수의 세례 때 인간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세례 전에는 완전히 인간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도덕적 미덕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는 신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의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아버지와 본성이 동등하다는 가정 때문이 아니라 받은 권능으로 인해 신격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신은 고통을 겪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입장은 로고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예수가 버림받았다는 외침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서기 200년에서 275년경 안티오크의 주교였던 사모사타의 바울은 이 견해를 지지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견해는 3세기에 교회에서

거부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기에 바울의 견해는 안티오크의 루시안과 그의 제자 아리우스와 같은 후대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쳐 아들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천 년이 넘게 지나서, 이 관점은 소시니안주의와 유니테리언주의에 의해 가르쳐졌고, 오늘날 교회의 자유주의 전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론에서 입양주의적 입니다. 입양주의, 또는 역동적 군주주의, 알겠어요? 역동적? 그것은 예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그를 활력화했습니다.

군주주의가 아들의 신성을 발전시키고 배제한 두 번째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인적 독특성을 배제한 것이었고, 이를 모달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군주주의는 모두 이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신교를 믿고, 그것을 방어하기로 결심했으며, 그것이 그들이 신격의 통일성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달리즘은 시벨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사벨리우스주의라고도 불렸습니다. 초기 교회에 매우 영향력 있는 견해였습니다. 그것은 신이 하나라는 이중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는 신이었지만, 모달리스트들은 테르툴리아누스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본질을 공유한다는 제안에 불편함을 느꼈고, 이것이 이신론을 수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양식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양식론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여기서 신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신이 세계 역사의 세 단계에서 각각 다르게 자신을 드러냈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신은 아버지이자 창조주였습니다.

복음 시대에 그는 아들, 구속자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로 그는 성령,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신격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개인적 구별을 부인했습니다.

모달리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확인했지만, 신격 안에서 그의 독특한 인격을 부인했습니다. 모달리즘의 한 가지 재앙적인 함의는 구속 역사의 사건이 허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독특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를 아버지께 실제로 대신할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 속죄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모달리즘은 필연적으로 도케타적인 것으로,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적인 모습이었다고 가르치지만, 어떤 모달리스트들이 그랬듯이,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단언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부주의 로 알려진 이단으로 , 아들이 아버지와 실제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통주의와 모달리즘의 차이는 인격을 설명하는 데 모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영원히 세 가지 모드,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정통파가 신이 동시에 세 가지 모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신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모달리즘, 사벨리우스주의 또는 일체성 오순절주의는 모달리즘 이며 신이 세 인격으로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시나요? 동시에는 아닙니다. 이 두 군주주의적 견해에서 신의 일체성은 유지되었지만 아들의 신성은 부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는 권능을 가진 사람, 역동적인 군주론, 또는 신의 단순한 현현으로 여겨졌지만, 성육신한 신의 아들, 즉 양태론적 군주론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유대교와 군주론과 관련된 이단입니다. 이제, 영지주의적 이단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시기에 성경 사상의 가장 심각한 왜곡은 영지주의와 그것의 그리스도론적 대응물인 도케타주의의 이단적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매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2세기 초 헬레니즘 세계를 휩쓴 크고 복잡한 종교적, 철학적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물질과 영의 플라톤적 이원론에 기초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영의 세계는 잠재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영지주의는 사람들에게 자세한 비밀 지식을 제공했고, 그리스의 영지주의는 영지주의이고, 영지주의는 현실에 대한 비밀 지식을 제공했으며, 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인이 모르는 것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여러 계급으로 나누었고, 가장 높고 가장 영적인 계급의 사람들만이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엘리트주의였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영지주의는 기독교에 이질적이었고, 성경적 신앙과 받아들여지거나 섞였다면 복음의 진리는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지주의자들은 신을 하나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알 수 없으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따라서 그가 창조하지 않은 이 타락한 물질적 우주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의 일부는 영지주의 사상에서 신과 세상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과 세상 사이의 간격은 중재자들, 즉 수많은 중재자들에 의해 채워집니다.

사실, 이 타락한 물질적, 타락한 우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이러한 중개자 중 하나, 즉 데미우르고스로 알려진 하급 권세자 또는 신이었습니다. 인간에 관해서는, 우리는 신과 같은 영적 실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육체에 갇혀 있으며, 육체는 우리가 탈출해야 할 무덤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타락은 역사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물질로 떨어지고 따라서 우리의 물리적 몸에 갇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창조와 타락은 데미우르고스의 일로 인해 일치합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에서 죄는 우리가 물리적 몸 안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참된 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리적 몸에 갇혀 있고 물질성이 소위 죄에 종속되어 있는 한, 구원은 물질적 존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떨어진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가능성은 모든 떠돌이 조각들을 자신에게로 다시 끌어들이고자 하는 위대한 영, 신에 의해 시작됩니다. 영지주의에서 신은 자신의 발산, 즉 순수한 영에서 조밀한 물질로 현실의 여러 겹을 거쳐 내려오는 영적 구원자를 내보내고, 영의 신성한 불꽃 중 일부에게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과 집을 가르치려고 시도합니다.

지식에 의해 깨어나면 우리는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예수는 누구일까요? 그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이 신성한 메신저인 그리스도를 위한 인간적 매개체였으며, 그는 신이 육체에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 보낸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형태의 영지주의는 영과 물질 사이의 대조를 감안할 때, 이 천상의 영적 구원자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인간 예수와 연합했거나(양자설) 또는 단순히 물리적인 몸의 모습을 취했다고(가현설)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늘의 구세주는 예수의 세례 때 그에게 들어왔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를 떠났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의 성경적 가르침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도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자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개념 전체를 부인했으며, 하나님은 누구와도 역할을 공유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라는 현실을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의 현실, 성육신한 아들의 완전하고 완전한 인간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지주의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죄와 구원 개념을 남겼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이레네우스, 테르툴리아누스와 같은 초기 교부들이 지치지 않고 이에 반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지주의가 전적으로 거부되어야 할 이단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이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주변에 떠돌았고,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적 흐름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콜로새서 1장과 같은 위대한 구절은 창조주와 구속주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속주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구속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그의 성육신으로 그것의 일부가 되셨고, 그의 죽음은 구원하시고,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 맏아들이시고, 그는 첫 열매 이시며, 우리는 구원의 전형에서, 순수한 영으로서의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변형되도록 부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21,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몸이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시고, 전체 시나리오의 끝은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지주의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교, 군주주의, 영지주의와 관련된 이단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초기의 정통 그리스도론적 제시는 어떻습니까? 가장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모두 잘 풀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가 두 본성을 가진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사실, 테르툴리아누스는 놀랍게도 그에 가깝습니다.

아시죠, 제 말은 신이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 대부분은 박해와 사자를 피하는 데 바빴고, 생각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초기 교부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안티오크의 이그나티우스, 순교자 저스틴, 이레네우스,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115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는 꽤 이른 시기의 증인이었고, 위대한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위대한 순교자이자 위대한 기독교인이었고, 예수에 대한 진실을 확증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15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일곱 개의 서신을 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이그나티우스는 영지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글을 썼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완전한 인간성의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가 나중에 공의회가 모을 조각들을 주는 것입니다. 글썄요, 공의회 이전에도 사람들 말입니다.

공의회가 하는 일은 공식화하고, 많은 연구와 고통과 투쟁의 결과인 고백과 신조를 글로 써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들여야 하며, 성경과 동등하지 않고 보편적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을 확인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귀를 막으라"고 유명하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트랄리아인 에게 보낸 그의 서신에서 "귀를 막으라"를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는 참으로 태어나셨고, 먹고 마시셨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참으로 박해받으셨고,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더욱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일으키셨을 때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와우. 하지만 어떤 무신론자, 즉 불신자들이 말하듯이, 그는 겉모습으로만 고통을 겪었고 금욕주의적이라면, 왜 내가 사슬에 묶여 있을까요? 바울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왜 나는 야수와 싸우고 싶어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죽습니다. 용감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Whew.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싶어했지만 어머니가 토가를 숨겨서 죽지 못한 뛰어난 사상가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오리게네스의 어머니는 그의 토가를 숨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알몸으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그나티우스는 또한 아들의 완전한 신성을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7장 2절에서 이그나티우스는 한 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진술을 나란히 제시합니다. 왼쪽에는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선재하신 아들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신의 아들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시대 직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었습니다: 저스틴 마터와 로고스 그리스도론.

저스틴의 날짜는 약 100년입니다. 즉, 우리는 그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압니다.

확실한 날짜는 165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문화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들은 지적인 반대를 경험합니다. 변증가로 알려진 많은 그리스도인 작가들은 교양 있는 멸시자들에게 신앙을 설명하고 옹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변증가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Justin Martyr입니다. 그리스도론과 관련하여 그는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불리는 것의 발전에 특히 중요합니다. 변증가로서 Justin은 로고스가 기독교와 헬레니즘 사상 사이의 중요한 연결 고리라고 믿었습니다.

철학자들의 학생이었던 저스틴은 철학자들이 많은 면에서 기본적으로 옳았지만, 그들의 전반적인 관점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교도 철학 사상과 기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스틴은 철학자들이 진실을 엿볼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우연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철학자들과 기독교 신학 사이의 부분적 합의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저스틴의 답변은 로고스, 즉 단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스 사상에 따르면 , 인간의 마음은 보편적인 이유로 로고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이다. 이것은 아직 성경이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현실을 뒷받침하는 보편적인 이유로 로고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합리적이며, 우리는 그 로고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요한 복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 안에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요 1:14). 그러므로 성육신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이유인 로고스가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스틴은 이 진리에 호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와 헬레니즘 사상을 연결합니다. 로고스 그리스도론을 사용하여 저스틴은 로고스의 신성과 성육신의 실체를 강력히 확인합니다. 그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선재하는 영, 즉 두 번째 신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진실이 강조됩니다. 로고스가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라는 것과 로고스가 발산하거나 표현한 인간 역사에서의 그의 출현입니다. 게다가 저스틴은 로고스와 아버지 의 관계가 영원하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아버지가 로고스를 생성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도 아버지나 로고스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비유가 불에서 불이 붙는 것과 같이, 많은 것을 불붙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에서 저스틴은 하나님이 하나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신이며 신성한 본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설명은 불완전하지만, 그는 영리한 쿠키이고, 그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수를 합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것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고스와 신의 관계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저스틴은

로고스를 우주적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신의 파생물이자 창조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예수 이전에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선지자들과 그리스 철학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고스, 문자 그대로,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 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존재이며, 이해되고 발언될 때마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로고스는 육신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로 거하게 되었습니다.

Logos spermatikos 는 당신이 원한다면 씨앗 형태의 Logos입니다. Logos Christology를 사용하여 Justin은 여러 가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둘째, 그는 기독교인들이 일신교를 거부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즉 두 번째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셋째, 그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편적 로고스인 동일한 그리스도는 모든 진실, 아름다움, 선함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로고스를 온전히 안다. 결국, 저스틴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생각과 모든 믿음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스틴이 후대에 물려준 문제 중 하나는 종속주의로, 로고스가 아버지로부터 창조에 의존하여 로고스의 행렬을 만들어냄으로써 로고스를 존재론적으로 아버지에게 종속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로고스의 영원한 선재가 뚜렷한 개인적 존재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 문은 나중에 아리우스 신학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저는 성경적 종속주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경고받고 있는 이 종속주의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작별 담화에서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알겠죠?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님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종속주의가 있지만 본질의 종속주의와 구별해야 합니다. 본질적 종속주의는 아들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기능적 또는 경제적 종속주의는 하나님 아들이 우리 죄인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었으며,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사역, 즉 경제적 종속, 즉 그의 기능의 관점에서 자신을 종속시켰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땅에 계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은 본질적으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종속주의는 맞지만 오늘날의 컬트는 초기의 오류주의자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오류를 저지릅니다 .

예를 들어, 그들이 "보세요, 신약에는 종속이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므로 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맞죠?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진 한 분의 인격의 신비에 걸쳐 넘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에서 아버지 와 완전히 동등하고 , 인간성에 관해서는 우리와 완전히 동등합니다. 칼케돈이 말했듯이요.

리옹의 이레네우스, 130년에서 202년경,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초의 진정한 기독교 신학자로 여기고, 뛰어난 사상가로,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소아시아에서 태어나 폴리카르포스의 제자로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그 후 장로로 갈리아로 파견되어 177년에 리옹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잘 알려진 변증적 저술은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기독교를 옹호한 저서인 이단에 반박(Against Heresies)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유명합니다. 그는 영지주의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그들의 신학과는 완전히 다른 신학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영지주의와 대조적으로, 이레네우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는 한 분의

신이, 그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무(無)에서 무(無)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두 손을 가지고 계시다고 확언합니다.

그는 신의 두 손의 이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그림이든 왜곡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의 두 손은 아들과 성령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적 인격의 함께 일하는 것의 통일성과 상보성, 그들의 조화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가 원하던 단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레네우스에게 있어서 신은 영지주의 사상과 달리 자신의 창조물과 직접 접촉하며, 여러 중개자를 통해 그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레네우스의 두 손 관점이 아들과 성령을 아버지께 종속된 것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가 안티노세 시대에 글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아버지들을 나중의 용어로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냥 불공평할 뿐이야. 테르툴리아누스가 어떻게 100년 후의 공의회 언어를 쓸 수 있었을까? 불공평해. 그들의 생각으로 일해.

게다가 교회는 특히 동서양 사이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용어를 여러 번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라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고, 같은 단어가 그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타협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그러나 이레네우스는 분명히 이러한 종속성을 신의 존재 안에 두고, 아들과 성령을 아버지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와 하나라고 여긴다. 이레네우스에게 아들과 성령은 완전한 신이지만, 그에게 이 확언은 신성한 통일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창조, 섭리, 구원에서 연합과 조화 속에서 일한다고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 이전에 서로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놀랍습니다. 인간과 신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의 관점에 있어서, 이레네우스는 성경, 창조, 타락, 구원의 스토리라인을 따르며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연결된 의지의 자발적 행위와 역사적인 타락으로 인해 타락했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모든 종족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 종족에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의 곤경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영적인 영혼이 물리적 몸에 갇힌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곤경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존재론적이지 않고 도덕적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마련해 주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론과 관련하여 이레네우스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공식화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구조와 틀을 따름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의 관계나 그들의 선재에 대해 길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 다 신으로 여겼고 로고스를 단순히 신의 발산이나 속성 또는 표현으로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로고스가 항상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로서 존재했으며, 따라서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구별되며 아버지의 양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로고스 그리스도론이 교회에 물려준 몇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레네우스에게 아들은 본성상 참 하나님입니다.

더욱이 이레네우스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천상의 기원을 가진 존재인 그리스도와 지상의 존재인 예수를 구별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이레네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며 동일하다고 선언했는데, 이 표현은 나중에 칼케돈 정의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리스어로 *eis kai ho autos*,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성경이 그에게 돌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적 조합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그 사람과 그리스도의 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좋은 일이죠.

이레네우스는 구원 교리를 풀어내면서 영지주의의 영-육 이원론을 거부하고 대신 구원이 창조의 폐지가 아니라 갱신과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재수집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담을 재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육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레네우스는 인간 삶의 각 상태를 다시 살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의 반대자들이 "당신은 아직 50살도 안 되었고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진술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레네우스는 예수가 50세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해에 따르면 예수는 어린 소년, 유아, 어린 시절을 아이로 구별했습니다. 그는 십 대 시절을 구별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노년기를 구별한다면, 5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겪었고, 아담과 달리 성공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는 인류를 대표적으로 요약하고,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인간 삶의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요약합니다. 그는 확실히, 실례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적 의지의 자유에 대한 견해를 믿었지만, 저는 여기서 공평하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거스틴을 인용하지만, 이전의 교부들은 어거스틴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고대와 현대 동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레네우스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을 주었습니다. *Filius Dei*, *Filius Hominis*, 그리고 *Factus* 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esus Christos, Homai, Homai Deus,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 이레네우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전적으로 그의 인간성과 우리의 인간성 사이의 동일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적 명확성의 정점으로, 약 3세기 후 칼케돈에서 다시 달성되지만 능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은 은사를 주셨고, 이레네우스는 은사를 한 배, 한 트럭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싱, 영지주의와의 싸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데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제 박사 멘토인 테르툴리아누스, 드류 대학교의 제임스 페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테르툴리아누스였습니다.

160년에서 230년경에 테르툴리아누스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그는 이교도인 로마 가문에서 태어나 수사학과 법률 교육을 받았습니다. 197년 이전 어느 때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의 첫 번째 주목할 만한 대표자입니다. 이전에는 이레네우스와 마찬가지로, 이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 또는 서양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명한 영지주의자인 마르키온과 다른 이단 집단에 대한 변증가로서 글을 썼습니다.

프락세우스 에 반대하여 썼습니다 .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레네우스와 함께 많은 동일한 주장을 사용하여 영지주의에 반대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또한 모달리즘에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모달리즘에 대답하면서 테르툴리아누스는 니케아와 칼케돈의 후기 공식화를 예상했습니다. 장 갈로가 지적했듯이, 그는 나중에 동방 교회에서 세 가지 큰 그리스도론적 오류인 아폴리나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단일신론에 대한 답변을 예상했습니다 . 사실, 그는 후기 공의회에서 사용될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리니타스(trinitas) , 삼위일체(trinity)라는 단어를 사용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 그리고 그는 신이 하나의 실체, 즉 실체 , 세 인격, 트레스 페르소네.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이름은 모드가 아니며, 모드일 수는 있지만, 모드론적 의미에서 모드는 아니지만, 실질적이고 영원한 구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움은 신의 일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또한 그의 용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체라는 말로, 그는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만드는 근본적인 존재론적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인격, 페르소나는 구별성을 제공하는 행동의 정체성을 가리킨다. 또한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테르툴리아누스의 사고에는 종속주의적 흐름이 있다. 그는 인격들 사이에 신성한 질서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크며, 아들은 두 번째이고,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는 기능적 용어보다는 존재론적 용어로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적 용어라면 괜찮습니다. 존재와 관련이 있다면, 존재의 순서에 따라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종속주의를 암시하거나 암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과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원론 에 도달했을 때 다소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 삼위일체론도 그다지 뒤쳐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로버트 라담이 설명하듯이, 테르툴리아누스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은 홀로 있었지만, 홀로 있지 않았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자신의 이성, 즉 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자신 안에, 즉 자신의 생각 안에, 그리스인들이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테르툴리아누스는 "신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말씀, 즉 세르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 오직 이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은 창조 때 자신의 말씀을 보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이것은 그 단어가 창조 때만 존재하게 되었고 선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까? 테르툴리아누스는 임박한 단어와 방출된 단어 사이에서 소멸시킨다. 그 단어는 항상 이성 안에 내재되어 있었고, 이성은 신 안에 있었지만, 명백히 창조에서만 인격이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존재론적 종속을 옹호하고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진정한 개인적 구별을 주장하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한 존재에 온전히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이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성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선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론으로 돌아가면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성육신의 주체가 육신을 취한 로고스라고 확언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지만, 실체, 본성, 인격이라는 동일한 기본 개념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질과 인간적 본질을 지녔지만, 오직 한 인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본성을 확언하지만, 신성한 아들인 한 주체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는 칼케돈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교부들 중 일부는 정말 재능이 있었고, 세상에, 나중에 네스토리우스주의가 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바쳤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두 실체의 결합의 결과가 아니어서 복합적인 인격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중 상태나 이중 실체를 소유한 단일한 신성한 인격이라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종속주의 문제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며, 아들이 아버지의 실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그는 이러한 관계를 신격 내에 두고 존재의 불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관계와 기원에 대한 설명을 원합니다. 그리스도론에 대한 테르툴리아누스의 독특한

공헌은 그의 인격 개념인데, 이는 이후 몇 년 동안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아들의 인격 속의 통일성과 그 인격의 두 본성 속의 실체를 분명히 보존하여 예수는 이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 되었지만, 그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 항상 매우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나아가, 영지주의와 도케타주의에 반대하여,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는데, 이레네우스는 이 진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후대의 그리스도론적 성찰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인간 본성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영혼 복합체를 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Gallo가 지적했듯이, 이 구원론적 주장은 1세기가 넘은 후에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을 부인한 아폴리나리우스주의에 대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또한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에서 경험한 감정과 열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즉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고 혼동되거나 섞이지 않은 본성에 대한 강력한 확인은 성육신의 결과로 하나의 혼합된 본성을 주장한 단일성 설에 맞선 교회의 입장에도 중요했습니다. 이 강의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 다음 강의에서는 기원과 니케아 공의회와 아리우스주의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공식 공의회로서 단호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공의회적인 방식으로 아들의 완전한 신성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교부 그리스도론, 파트 1, 니케아 이전입니다.